

강화군, 문체부 「2023년도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사업」 선정

‘서도면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에 국비 10억 확보
 도서지역 주민들도 체육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사업추진



강화군 생활체육센터(사진제공 강화군청)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2023년도 생활체육 시설 확충 지원사업」에 ‘서도면 근린생활형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이 선정돼 국비 10억 원을 확보했다고 1일 밝혔다.

「2023년도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사업」은 문체부에서 매년 체육진흥 기금을 활용해 체육시설들을 누구나 언제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생활밀착형 체육시설 확충 지원사업이다.

2023년 착공해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서도면(주문도) 근린생활형 다목적체육관은 지상 1층 연면적 500㎡ 규모로 배드민턴, 탁구 등 선호도 높은 생활체육시설이 생길 예정이다.

또한 화장실, 샤워실, 주차장 등의 부대시설들이 조성될 예정이다. 본 사업이 마무리 되면 도서지역인 서도면 주민들의 체육시설에 대한 갈증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강화군은 앞서 2019년에도 해당 공모사업에 선정돼 선원면 신정체육시설 부지에 생활체육센터(총사업비 23억 원)를 건립해 지역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유천호 군수는 “강화군 13개 읍·면 중 유일하게 배편으로만 출입이 가능한 서도면에는 그동안 체육시설이 거의 전무한 실정이었다”면서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서도면 주민들도 체육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강화군, '2023년도 특수상황지역 개발 19개 사업 추진'

지역균형발전 · 경제활성화 · 인구활력 기대



지난 4월 국비확보보고회(사진제공 강화군청)

선정된 신규 사업으로는 ▲석모도 하리항 정비사업 (25억 원) ▲석모대교 야간경관조명사업(7억 원) ▲북성리 생활여건 개선사업(20억 원) ▲아차도 내부 도로망 확충사업(35억 원) 등 11개 사업에 내년부터 5년간 326억여 원이 투입된다.

계속 사업으로는 ▲주문도 관광기반 연결도로 ▲볼음도 관광기반 연결도로 ▲대빈창·뒷장술 해수욕장 정비사업 ▲교동지구 농업용수 공급 등 8개 사업이 추진된다.

이번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비 확보는 지난 6월 주문연도교 건설사업이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데 이은 쾌거로 민선 8기 새롭게 도약하는 강화군의 신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화군(유천호 군수)은 행정안전부 소관 '2023년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으로 11개 신규 사업과 8개 계속비 사업이 선정되며 내년도 사업에 169억 원이 투입된다고 밝혔다.

특수상황지역사업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해 접경지역인 강화군 전체가 해당되며, 균형발전 특별회계를 통해 최대 80%까지 국비가 지원된다.

유천호 군수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며 "앞으로도 신규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부서장들과 함께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 등을 방문해 국비 지원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해 사업비를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1**

- 최백하 기자

강화군, '힌남노' 대응 및 추석 명절 종합대책 '만전' 강조

"군민 안전이 최우선, 선제적 대응으로 피해예방"



확대간부회의(사진제공 강화군청)

강한 바람을 동반한 태풍이 발생해 군민들의 걱정이 크실 것"이라며 "한발 앞서서 취약 지역과 주요 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대책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전 직원에게 당부했다.

확대간부회의에서는 기상정보 및 국민행동요령 홍보, 재해 예방·복구사업장에 대한 대처상황, 산지 개발지, 배수갑문 등 안전조치, 어선 고정, 방파제 등 선착장 시설 안전관리, 시가지 간판 등 낙하 위험물 안전조치 등 안전관리대책을 살폈다.

이어서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 연휴 쓰레기 관리대책, 명절 대비 가축전염병 방역대책, 연휴 코로나 방역체계 구축 등 추석 연휴 종합대책을 꼼꼼하게 체크했다.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5일 '9월 직원조회'와 '확대 간부회의'를 잇따라 개최했다.

직원조회에서 유천호 군수는 태풍 '힌남노' 대응과 추석 명절 종합 대책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추석을 앞두고 많은 비와

유천호 군수는 "군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태풍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해 달라"며 "군민께서는 특보발령 시 벼도복, 낙과 등 농산물 걱정은 뒤로하고, 국민행동요령에 따라 행동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1**

- 최백하 기자

강화군의회 제281회 제1차 정례회 개최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수도권 범위 제외 촉구 결의안 채택



제281회 제1차 정례회 개최(사진제공 강화군청)



제281회 제1차 정례회 개최(사진제공 강화군청)

강화군의회(의장 박승한)는 5일 제281회 제1차 정례회를 개최했다. 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9월 30일까지 26일간의 일정이다.

이번 제281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원 발의 2건을 포함한 조례안과 결의안 등 총 1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또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강화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안」등 총 14건의 안건을 심의 할 예정이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해 집행부에서 추진해 온 주요 사업과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진다. 21일부터 29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번 제1차 본회의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수도권 범위 개정

및 지원대책 촉구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결의안에는 강화군을 비롯한 옹진, 가평, 연천군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수도권으로 지정되어, 개발행위에 제한을 받는 등 불합리한 규제가 작용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법령의 개정과 지원 대책을 촉구하는 결의문이 포함되어 있다.

마지막 날인 9월 30일에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각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모든 안건을 최종 심의·의결함으로써 26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무리하게 된다.

박승한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유천호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에게 격려의 말과 함께 “우리 강화군의회가 군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하여 뜻깊은 성과를 거두는 소중한 회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

박승한 의장·한승희 의원·박용철 시의원, 군 현안사항 해결위해‘공조’

인천광역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회·종합건설본부 직원과의 간담회 개최 「거침도~약암리」 도로개설공사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에 대한 공감대 확인



박승한 의장·한승희 의원, 박용철 시의원 도로개설 현장방문(사진제공 강화군청)

박승한 강화군의회 의장, 한승희 의원, 박용철 인천시의회 의원이 지난 29일(월) 김포시 대곶면에 위치한 현장사무실을 방문하여 「인천 서구 거침도~약암리 간 도로개설공사」의 공정률을 확인하고 신속한 추진을 당부했다.

본 사업은 초지대교~김포~인천 서구를 연결하는 2차로 구간을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총 6.47km 구간에 대해 466억을 투입하여 2024년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날 현장에는 세 의원뿐 아니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임관만

위원장·이인교 부위원장·유승분 시의원과 종합건설본부 직원들도 함께하였으며, 하루빨리 주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강화~김포~인천을 연결하는 도로망을 신속하게 확장해줄 것을 주문하였다.

박승한 의장은 “본 사업추진은 단순한 도로확장이 아닌 강화군민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향후 인천시와 강화군의 이동 시간이 짧아져 인천시민의 강화군 방문이 늘어나고, 인천시와의 연대감도 높아질 뿐만 아니라 관광객 증가로 인해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한승희 의원은 “거침도~약암리 도로 확장 및 직선화 사업이 끝나면 인천~강화 간 교통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공사가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꼼꼼하고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박용철 시의원은 “본 해안도로가 확장됨으로써 수도권 제1의 역사·문화·관광도시 강화군의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수도권과의 접근성 향상과 쾌적한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중앙부처, 인천시, 김포시, 강화군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강화군, 한·중 수교 30주년 기념 '군민참여 사진전' 개최

오는 24일까지, 군민의 소중한 추억이 담긴 이야기 공유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오는 24일까지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한·중 수교 30주년 기념 군민참여 사진전'을 오는 24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중국 그리고 나, 사진 콘테스트' 공모전에는 '부모님과 함께한 여행기', '중국의 야경', '여행길 소창 패션쇼', '웅장한 자연을 벗 삼은 트레킹', '임시정부 독립운동지' 등 중국에서 경험한 소중한 추억이 담긴 총 166점의 사진과 이야기가 접수됐다.

1차 심사에서 작품 30점을 선정했으며 오는 22일까지 군청 1층 야외 데크에 전시한다. 23일과 24일에는 전시 장소를 옮겨 강화문화재야행 전시장인 용흥궁 공원에서 사진전을 개최한다. 23일에는 관람객이 직접 참여하는 2차 심사가 진행된다.

유천호 군수는 "이번 전시전을 통해 한·중 수교 30주년을 기념하고 군민들의 소중한 추억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군민들이 참여하는 행사를 개최해 지친 일상을 벗어나



한·중 수교 30주년 기념 '군민참여 사진전'(사진제공 강화군청)

힐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중국 주산시와 우호교류를 21년째 이어오고 있다. 대표단 상호방문, 청소년 홈스테이 및 문화체험, 공무원 상호파견, 친선 게이트볼 대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다. **1**

제5기 강화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공청회 개최

유천호 군수 "복지사각 지대 없는 모두가 행복한 강화군 실현에 최선"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공청회(사진제공 강화군청)

추진사업 수립(안)에 대해 군민에게 보고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추진사업은 민선 8기 군정 철학 및 공약사업을 토대로 '함께 만들어요 풍요로운 강화'라는 비전 아래 '모두의 삶이 행복한 강화군'을 목표로 2대 전략체계, 8대 추진전략, 50개 세부사업으로 구성했다. 또한 지난해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장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특히, 군민이 원하는 복지 욕구를 반영해 공감하고 상생하는 온 마을 돌봄 나눔터, 교육과 고용 복지를 잇는 배움·일터, 지속 가능하고 풍요로운 생활서비스, 안전하고 쾌적한 건강쉼터 등이 포함됐다.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지난 2일 군청 진달래홀에서 제5기 (2023~20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지역주민, 관계 공무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기 강화군 지역사회보장계획 방향과

유천호 군수는 "제5기 보장계획은 앞으로 4년 동안 군민들의 복지·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문화 등을 책임질 중요한 계획"이라며 "선정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복지사각 지대가 없는 모두가 행복한 강화군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1**

- 최백하 기자

강화군, 군민 눈높이 맞는 산후조리 지원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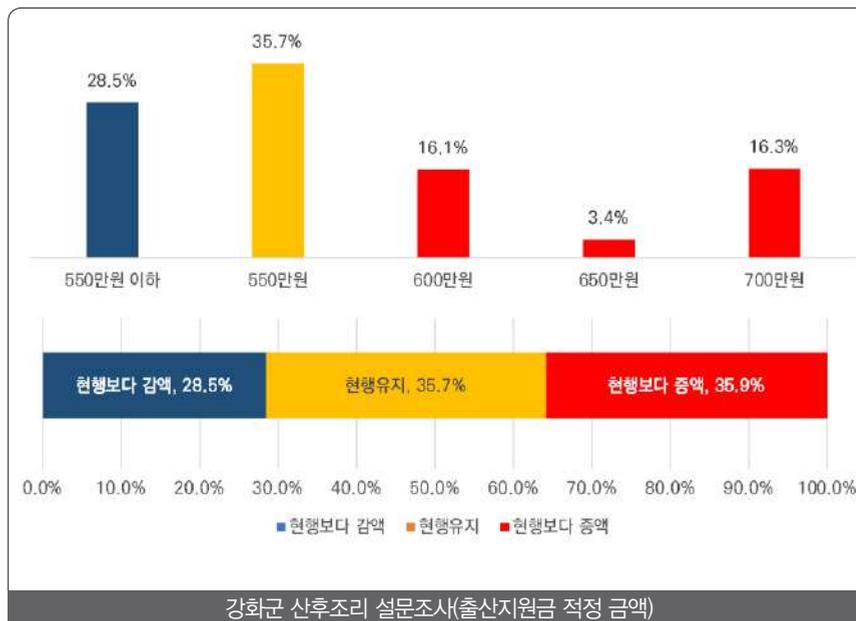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군민의 수요를 반영한 정책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군은 지역 언론사인 바른언론과 함께 지난달 24일부터 29일까지 만 18세 이상 군민을 대상으로 지역 산후조리 지원정책 개발과 관련한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 43.0%가 강화군의 산후조리 지원이 현금 지원 방식으로 이뤄지는 것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은 502명이었으며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 ±4.4%p이다. 또한, 출산 밀접 관계 계층인 2·30대와 이들의 부모 계층인 50대에서 현금지원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지원금의 적정액은 ‘현행보다 증액’ 35.9%, ‘현행 유지’ 35.7%, ‘현행보다 감액’ 28.5%로 조사돼, ‘증액’ 또는 ‘현행 유지’가 비슷했다.

유천호 군수는 “군민의 수요를 반영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 최벽하 기자

강화군, 추석맞이 군·경·소방관서 부대 위문 격려



추석명절 맞이 소방서 위문(사진제공 강화군청)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추석 명절을 맞아 해병대 2사단, 강화소방서 등 21개 군·경·소방관서를 방문하여 현장대원 및 장병들을 격려했다.

이번 위문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영농철 대민지원, 방역활동, 재난·재해복구를 위해 솔선수범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은 각계 기관의 노고에 감사하는 마음을 전달하고자 마련됐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지속되는 가운데 군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은 군·경 부대원, 소방대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군·경, 소방대원과 함께 더욱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최벽하 기자

Photo NEWS 현장행정 및 내고장을 지키고 가꾸는 사람들



금연절주 캠페인(사진제공 보건소)



청결캠페인(사진제공 강화군청)

강화군, '강화섬쌀 이용'과 '강화섬쌀 팔아주기 운동' 참여 당부

유천호 군수, 해풍과 터가 좋아 맛있는 '강화섬쌀 팔아주기 운동' 대대적 전개



강화섬쌀 수확현장 (사진제공 강화군청)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농업인의 경영안전과 쌀 산업 보호를 위해 '강화섬쌀 팔아주기' 운동에 대대적으로 나섰다.

최근 쌀값이 45년 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하면서, 본격적인 햅쌀 수확기에 접어든 벼 재배농가와 시장격리곡을 매입·보관중인 농협 등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이에 명절을 앞두고 관내 공공기관, 유관기관, 단체, 기업체 등이 자발적

으로 참여하는 '강화섬쌀 팔아주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특히 군은 지난 7월 인천광역시에 '강화섬쌀 팔아주기 운동'을 건의하고, 2021년 산 시장격리곡 7,068톤 매입해 쌀값 안정과 재고량 해소를 위해 선제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인천시 각 군·구의 지역 행사에서 '강화섬쌀 이용'과 '강화섬쌀 팔아주기 운동' 참여를 당부하고, 자매결연 도시 등에는 직거래 및 명절선물로 강화섬쌀을 구매하도록 요청했다.

이봉영 농촌지도자 강화군연합회장은 "작황은 좋은데 쌀값이 폭락해 농민들은 추수를 앞두고 수확의 기쁨이 아닌 시름에 빠졌다"며 "우리 농민과 지역 경제를 살린다는 심정으로 '우리 쌀 먹기 운동'에 적극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유천호 군수는 "유례없는 쌀값 하락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 쌀 팔아주기 운동을 확산시켜 나가겠다"며 "택배비 및 포장재, 농산물 마케팅, 직거래장터 등 필요한 지원을 강화해 농업인들이 자식처럼 키운 고품질의 강화농특산물이 경쟁력을 갖고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교동도 10만 송이 난정해바라기 정원 개장

접경지 난정마을 주민들이 직접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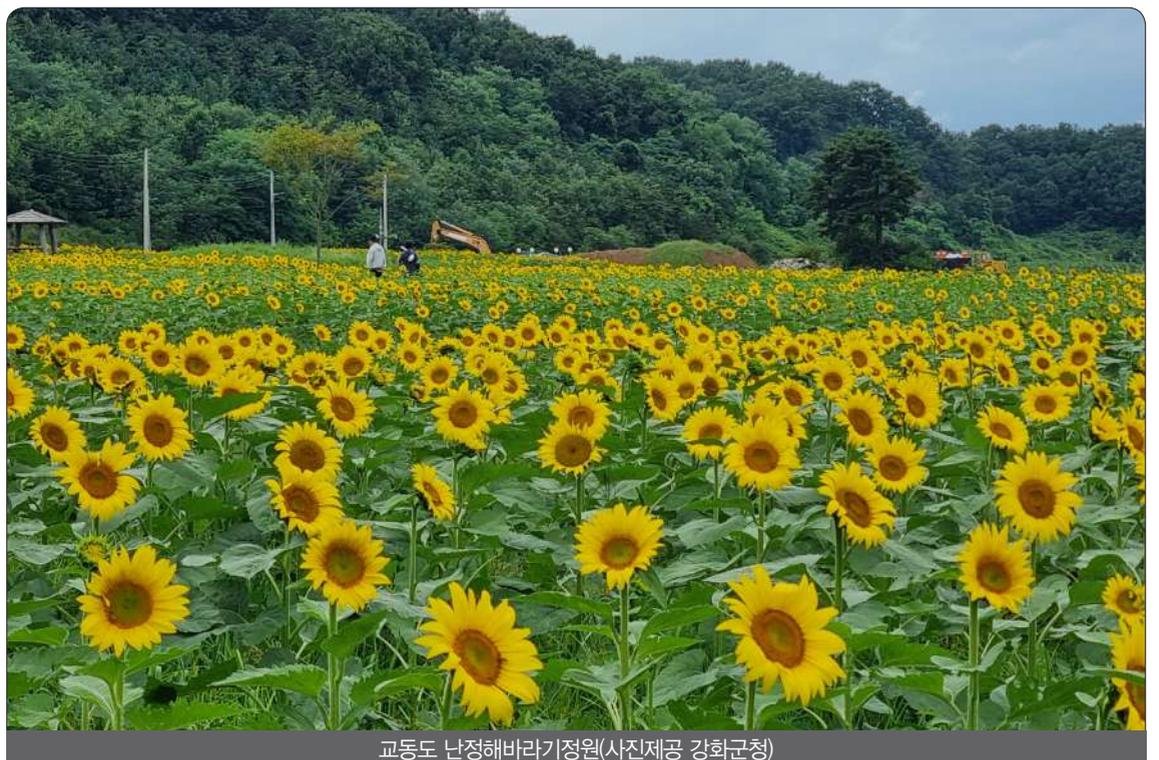
강화군 교동도 난정해바라기 정원의 10만 송이의 해바라기가 노란색 물결을 이루며 방문객을 유혹하고 있다.

올해는 3만 3,000㎡ 부지에 해바라기 10만 송이를 심어 수도권 최대 규모로 정원을 조성하고, 곳곳에 포토존을 설치해 즐거움을 더했다.

난정해바라기 정원은 난정마을 난정저수지 둑 너머로 한강하구의 서해바다를 품고 있으며, 저 멀리 북녘 땅이 보이는 접경지로 2017년부터 마을 주민들의 뜻을 모아 공동체 강화와 소득증대를 위해 농사가 어려운 저수지 옆 공유수면에 유휴지 땅을 일궈 정원을 직접 조성했다.

한여름 무더위에 주민들의 봉사활동으로 정성을 들여 가꾼 해바라기 정원은 오전 8시부터 18시까지 개장하며, 성인에 대해서는 소정의 입장료(2천 원)를 받는다.

최광호 난정마을 이장은 "올해도 마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가꾼 해바라기로 노랗게 물든 정원을 보니 기쁘다"며 "깨끗한 공기와 수려한 풍경이 어우러진 교동도에서 많은 분들이 방문해 좋은 추억을



교동도 난정해바라기정원(사진제공 강화군청)

남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난정해바라기 정원을 교동을 넘어 강화를 대표하는 관광지로 발돋움하도록 힘써주신 주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올 가을에는 산, 바다, 들녘, 갯벌이 어울어진 교동도에서 강화도의 매력을 한껏 즐겨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 최백하 기자

“강화소년 조봉암 대한민국을 세우다”

죽산의 고향 강화에서 강연회와 사진전 개최



강화소년 조봉암 대한민국을 세우다

초대합니다

강연회
2022.9.15(목) 15:00~17:00
강화중앙교회
인천 강화군 강화읍 청하동길 36 (신문리 549번지)
전화 : 032-934-9421~2

사진전
2022.9.15(목) ~ 9.29(목)
강화중앙교회
인천 강화군 강화읍 청하동길 36
전화 : 032-934-9421~2
개관식 : 2022.9.15. 오후 2시

주최 : (사)죽산조봉암선생기념사업회 / 후원 : 인천광역시
협찬 : 강화군청, 강화중앙교회, (사)강화3.1운동기념사업회, 세월문화재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경북대학교 아시아연구소
문의 : 02-743-0731 (사)죽산조봉암선생기념사업회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오는 15일(목) 오후 3시, 강화중앙교회에서 ‘강화소년 조봉암 대한민국을 세우다’라는 주제로 강연회와 사진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죽산 조봉암은 강화군 선원면 금월리(가지마을)에서 태어났으며, 4남매 가운데 둘째 아들로 구김살 없는 장난꾼으로 어린 시절을 보냈다. 강화 잠두교회(蠶頭教會)에서 세례를 받았으며, 강화공립보통학교와 농업보습학교를 졸업하는 등 강화 기독교계 민족교육 영향을 받았다.

죽산은 강화지역 3·1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이러한 활동으로 체포돼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된다. 3·1운동 참여와 수감 경험은 죽산을 평범한 청년에서 독립운동가로 성장하게 했으며 이후 국내외에서 민족 해방투쟁에 헌신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

이번 강연회와 사진전이 개최되는 강화중앙교회의 전신이 바로 강화 잠두교회다. 강화 잠두교회는 1900년 인천 강화읍 신문리에 세워진 개신교 감리 교회로, 일제강점기 잠두의숙(사립제일합일학교) 설립 등 교육을 통한 민족운동을 전개했다. 1907년 강화진위대 해산병의 무장저항운동에 감리교 계통 인사들이 참여했으며 이후 3·1운동에 참여하는 등 강화 근현대사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강연 주제는 죽산 조봉암과 강화 3·1운동, 죽산 조봉암과 대한민국의 탄생, 죽산 조봉암과 농지개혁 세 가지 주제로 구성된다. 이은용 (사)강화 3·1운동 기념사업회 이사장, 주대환 (사)죽산 조봉암 선생 기념사업회 부회장, 전성원 새얼문화재단 황해문화 편집장이 강사로 나선다.

강연과 함께 열리는 사진전은 지난해 인천시청 본관 중앙홀에서 시작한 '그리움...인천이 낳은 지도자, 조봉암'의 순회 전시다. 강화 중앙교회 로비에서 오는 15일(목)부터 29일(목)까지 2주간 개최된다. 전시는 죽산의 일대기를 도표로 구성하고 주요 업적이 담긴 사진과 신문기사, 어록과 진보당 사건 당시의 자필 자공서(自供書) 등으로 구성된다.

김경아 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강연회와 사진전을 통해 죽산 조봉암 선생의 참모습을 알리고 시민의 역사인식 제고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인천시는 이번 강연회와 사진전 개최를 비롯해 조봉암 선생의 장녀인 조호정 여사 구술 기록화 사업, 죽산 평전(연구집), 죽산 만화 발간 등 (사)죽산 조봉암 선생 기념사업회의 기념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

강화군·한국관광공사, 「얼라이브(Alive) 강화II」모바일 게임 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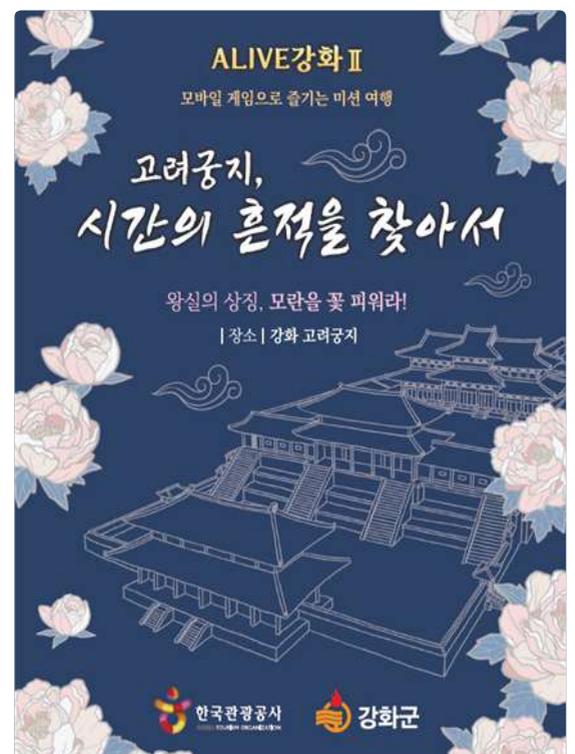
“가족과 연인과 함께 즐기는 모바일 게임 시간여행에 참여하세요”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한국관광공사 경인지사(지사장 김배호)와 함께 ‘강화 고려궁지’의 역사적 이야기를 담은 스토리텔링형 모바일 미션 게임을 출시했다.

새롭게 출시한 모바일 게임 ‘얼라이브(Alive) 강화II(고려궁지, 시간의 흔적을 찾아서)’는 강화동종 캐릭터의 안내로 고려궁지에서 고려와 조선의 흔적을 찾고 주어진 6가지 임무를 완수하면 특별한 이벤트 영상을 볼 수 있다. 또한 여행객들은 '얼라이브(Alive) 강화II'를 통해 고려궁지에서 이어지는 골목 사이사이를 걸으며 고려시대부터 1960~70년대 산업화기에 이르는 천년에 이르는 강화의 숨겨진 이야기를 즐길 수 있다. 미션을 수행한 관광객에게는 원도심 한옥관광안내소(강화읍 남산길 14-1)에서 소정의 기념품을 지급한다.

‘강화 고려궁지’는 고려가 몽골군의 침략에 대해 도움을 개경에서 강화로 옮겨 38년간 사용한 궁궐터다. 고려궁지를 중심으로 성공회 강화성당, 조양방직, 미래체험관, 소창체험관 등 골목길로 이어져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추석 연휴에 가족과 함께 새롭게 출시한 ‘Alive 강화II(고려궁지, 시간의 흔적을 찾아서)’의 미션에도 참여하고, 원도심 도보여행도 즐겨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강화군의 원도심 연계 관광 활성화와 지역 내 소비 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시민께 시장이 직접 찾아가는 현장성을 강화한 열린 시장실로 운영

13일, 서창동 행정복지센터 찾아 시민들과 격의 없는 대화 “제2경인선의 조속한 추진에 대한 인천 의지 확고”

인천광역시 유정복 인천시장이 13일, 시민과 직접 소통하기 위해 개설한 「온라인 열린시장실」 시민의견 중 ‘제2경인선 조속 추진’ 건에 대해 현장에서 시민들을 직접 만나 답변했다고 밝혔다.

해당 의견을 제시한 서창지구자치연합 대표 등 관련 시민 20여 명과 서창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만난 유정복 시장은 ‘시민의 친구 유정복’ 으로서 시민들과 격의 없이 자유로운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답변에 앞서 유정복 인천시장은 ‘균형’, ‘창조’, ‘소통’ 3대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300만 시민의견을 더 열심히 경청하고 소통하기 위해 「온라인 열린시장실」을 개설했다고 밝히며 답변을 시작했다.

이번 시민의견은 구로차량기지 이전과 관계없이 제2경인선을 건설할 수 있도록 현재 시가 추진 중인 ‘제2경인선 사업 재기획 용역’을 통해 조속히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대한 공감대가 3,000여 건에 이르렀다.

유 시장은 “제2경인선의 조속한 추진에 대한 인천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국토부는 물론이고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원안 추진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 재기획 용역 결과도 국토부에 강력하게 전달할 것”이라며 “사업의 변경 추진 여부는 국토부의 권한이지만 국토부가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도 결국 지역발전과 지역 주민의 편의를 위함”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유 시장은 “인천발 KTX를 추진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제2경인선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인천의 입장을 전달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다수의 시민이 공감하는 민원현장에서 직접 대화하는 것이 민선 8기 소통의 기본방향”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찾아가는 열린 시장실」은 온라인을 통한 다수 시민의견 수렴과 수요자 중심의 오프라인 현장소통을 통합해 민선 8기 들어 처음 도입한 사업으로, 시민의 의견에 3천명 이상이 공감하면 공식답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답변내용은 ‘인천은 소통이가득’ 사이트 (<http://cool.incheon.go.kr/>) 열린시장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송기훈 기자

온라인 열린시장실 공식답변(22. 9. 13.)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천광역시 유정복입니다.
민선8기 인천시정부는 시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소통하기 위해 온라인 열린시장실을 개설하였습니다.

운영 두달만에 무려 3만 여명의 시민이 방문해주셨고, 200여 건의 소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첫 번째 답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럼 3천분 이상의 시민께서 공감해주신 ‘제2경인선 조속 추진’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인천은 제2경인선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국토부는 물론이고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만일에 대비해 사업 재기획(플랜B)노선으로 시행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2경인선’은 우리 인천이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연수구 청학동에서 경기 광명을 거쳐 서울 노량진까지 이어지는 총 37.3km 구간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구로 차량기지의 광명 이전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광명시와 지역 시민단체가 이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사업비 증가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도 잠정 보류된 상태입니다.

제2경인선 추진이 주민의 오래된 바람이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민의 편의를 위한 일에는 여야가 없습니다.

인천은 지역 정치권과 함께 원안 노선 추진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원안 추진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하여 마련한 사업 재기획 용역(플랜B노선)결과도 국토부에 강력히 전달할 것입니다.

사업의 변경 추진 여부는 국토부의 권한이지만 국토부가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도 결국 지역발전과 지역 주민의 편의를 위함입니다. 지역과 주민의 바람을 넘어선 정치와 행정은 있을 수 없습니다.

지난 2014년 인천시장으로 출마하며 했던 제1호 공약은 당시 누구도 생각지 못한 인천발 KTX였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한 일이라 했지만 2년 만에 예산 확보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시키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저력으로 만들어 낸 기적이자 영광입니다.

그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인천의 입장을 전달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인천의 강력한 의지에 끝까지 함께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인천시, 사회안전망 강화와 민생경제 활성화에 1조 투입

유정복 시장, 「시민이 행복한 인천형 민생경제 대책」 발표

현장소통 건의사항 2,100억 등 3개 분야 10개 과제 추진



인천광역시청 청사

인천시가 국내외 불안요소에 따른 물가 상승과 경제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등을 보호하고,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1조원이 넘는 재정이 투입되는 민생경제 대책을 추진한다.

인천시는 민선8기 핵심 가치인 균형, 창조, 소통을 바탕으로 민생경제 활성화 대책을 마련했다. 전담 T/F를 운영하는 한편, 유정복 시장과 실·국·본부장들이 지난 8월 경로당, 전통시장, 소상공인, 중소기업, 농어촌지역 등 20여 개 중소기업, 전통시장, 소외지역 등을 직접 찾아가 들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적극 반영됐다.

이번 대책은 ▲민생경제 지원, ▲서민생활 안정, ▲제도·규제 개선 등 3개 분야로 나뉘어 10개 과제를 추진하며, 총 1조 130억원의 재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 중 4,159억원은 우선 올해 추경예산에 반영해 연내 시행하고, 5,971억원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다.

■ 분야별로 먼저 '민생경제 지원분야'에 총 3,402억원을 투입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 세대별 일자리, 농·어촌·도서지역, 문화·예술·관광 등의 일상회복을 위한 기업·세대별 맞춤형 지원을 할 예정이다.

■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에 나선다.

내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5,000억원(매년 1,250억 보증/예산 100억원) 규모의 희망인천 소상공인특례보증을 시행할 예정이다.

원 부자재 가격 급등과 금리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올해 경영안정자금 용자규모를 1조원에서 5,000억원(추경 80억)을 추가 확대하고, 내년부터는 매년 1조 5,000억원 규모로 지원할 예정이다.

■ 맞춤형 취업 장려를 위한 세대별 일자리 지원도 추진한다.

청년계층의 취업활동 지원과 함께 중소기업 기피 및 채용 후 퇴사율을 줄이기 위한 재직청년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청년 드림 사업도 내년 사업비를 올해보다 100억원으로 확대하고, 자립준비청년 자립 정착금도 내년부터 2백만원 인상한 1천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 농어촌·도서지역에 대한 물류·유류비 등 지원을 강화한다.

비료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비료가격 안정을 위해 25.7억원을 새로 지원하고, 유가 급등에 따른 어업용 면세유 보조금도 새로 12억원을 지원한다.

그 밖에 ▲농산물 유통 물류비 지원 확대, ▲농산물 유통 저운

저장고 지원 확대, ▲강화군·옹진군 도서지역 버스운송 지원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 코로나19로 위축된 문화예술·관광 지원도 강화한다.

위드 코로나 상황에 따른 문화예술, 관광 및 마이스 분야의 수요 증가에 발맞춰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 및 문화예술단체 지원 사업을 확대해 창작의욕 고취 및 문화·관광업계 경영 안정화를 도울 계획이다.

■ '서민생활안정 분야'에는 총 6,728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주택가격 및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취약계층 지원, 코로나19 대응, 급식개선, 물가관리 등을 지원한다.

■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정책으로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

도심내 주거 취약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 주택을 매입해 임대해 주는 임대주택사업은 올해부터 2026년까지 매년 1,000가구씩 총 5,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또, ▲소외계층 대상 통합문화이용권 확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돌봄지원(신규), ▲공공일자리 확대, ▲자활근로 일자리 확대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계층에 대한 지원방안도 계속 추진된다.

지원방안은 공유재산 임차인의 부담 완화를 위한 ▲올해 하반기 공유재산(공공기관 포함) 임대료 88억원 규모 감면, ▲코로나19 감염 치료비 지원 ▲코로나19 감염 생활지원비 등이다.

■ 물가상승 등을 반영해 급식 개선과 생활임금 인상을 추진한다.

최근 외식물가 상승에 따라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지원 단가 및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 단가를 7천원에서 8천원으로 인상해 9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2학기 학교급식 지원 단가도 약 9.7% 인상했다. 물가상승이 지속될 경우 내년에 추가 인상도 고려하고 있다.

■ 물가관리 등 생활안정에도 힘쓴다.

물가관리를 위해 올해 하반기에도 7대 지방공공요금 동결 기조를 유지할 예정이다. 또, 착한 가격업소 운영 활성화를 위해 관련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과 함께 지원 규모도 확대하고, 착한 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 제도·규제 개선 분야는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에 초점을 맞춘다.

재정적인 지원 대책뿐만 아니라 형식적이고 불편한 제도나 규제에 대해 개선방안을 적극 마련해 기업이나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외에 제도개선·건의사항 55건은 유관기관 협의 및 부서간 협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대책은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등 경제적 피해를 입은 시민에 대한 재난 불평등을 해소하고, 경제 회복을 극대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이어, "시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경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경기 회복과 서민생활 안정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오직 시민, 오직 인천, 오직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 송기훈 기자

김포시,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 국비 35억 확보

자율주행 대비, 연속성 있는 ITS 인프라 구축, AI·빅데이터 분석·디지털 트윈 IT기술



김포시,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사진제공 김포시)

김포시(시장 김병수)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23년 지자체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35억을 확보했다.

이로써 올해에 이은 2차 ITS 사업을 추진할 재원이 확보됨에 따라 총 59억원(국비 35억4천, 시비 23억6천)을 투입하여 지능형교통시스템(ITS)을 확대 구축한다.

2023년도 ITS 사업은 보다 촘촘하게 교통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노변기지국(DSRC-RSE)과 스마트교차로를 추가 구축하고, 교통흐름과 교통신호를 시뮬레이션 분석하기 위한 교통정책분석지원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지능형 교통시스템에는 여러 IT기술이 활용되는데, 영상분석에는 딥러닝 기반의 AI기술, 교통 데이터 처리에는 빅데이터 분석기술, 교통흐름 분석에는 디지털 트윈 기술이 적용되어 ITS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인다.

한편, 51억원의 국비를 보조받아 현재 구축중인 1차 ITS 사업은, 오는 12월 준공 예정이며 보다 빠르고 정확한 소통 상태와 우회경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ITS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관호 도시안전정보센터장은 “김포는 서울과 인천, 고양, 강화를 잇는 수도권의 교통 요충지로, 연속성 있게 ITS 인프라를 구축하여 교통체계를 개선해가면서, 자율주행 스마트도로 시대를 차근차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김포시, 국민권익위원회와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김포시(시장 김병수)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법률 문제, 복지혜택 수급 등 주민의 생활 속 고충과 불편을 상담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오는 20일(화) 오전 10시부터 16시까지 시청 3층 참여실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업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분야별 상담반이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주민을 찾아가 현장 상담을 통해 고충민원을 해결하는 서비스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상담 중 바로 해결이 가능한 고충이나 문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해소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항은 사전예약신청서(www.gimpo.go.kr 누리집 김포 소식 알림사항)를 9월 13일까지 해당 관련 부서 및 읍·면·동에서 사전 접수 받고 있다.

이번에 진행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고양시, 파주시, 강화군 주민도 참여할 수 있으며, 상담 분야는 행정, 안전, 교육, 복지, 산업, 농림, 환경, 도시계획, 교통, 도로, 세무, 주택, 건축, 경찰, 국방, 보훈 등 모든 생활 속 민원으로 고용노동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협업기관에서 근로개선, 법률상담, 소비자 피해, 사회복지 수혜, 지적 분쟁 등 다양한 생활 속



김포시청

고충을 상담한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을 통해 지역주민과 행정기관 간의 갈등 및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고, 민원 취약분야 애로사항이 해소될 수 있는 창구가 되기를 바란다”며 “많은 시민들이 국민신문고 상담장을 방문해 애로사항에 대한 자문을 받고 고충을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달리는 국민신문고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044-200-7479) 또는 김포시 감사담당관(☎ 031-980-2098)으로 문의하면 된다. □

강화군 새마을회, 이웃사랑 실천 ‘사랑의 추석송편 나누기’ 행사



새마을지회 송편나눔행사(사진제공 강화군청)

강화군 새마을회(회장 조인술)는 2일 민족의 최대 명절 추석을 맞아 이웃사랑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사랑의 추석 송편 나누기’ 행사를 진행했다.

유천호 군수도 각 읍·면 새마을 남·녀회장들과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송편 만들기에 직접 나서며 힘을 보태어 빛은 송편을 홀몸어르신 800가구에 전달하며 정을 나눴다.

조인술 회장은 “추석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음식인 송편을 어르신과

함께 나누며 말벗이 되어 주신 읍면 새마을 남·여 지도자님께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이 없도록 지역나눔문화에 앞장서는 새마을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유천호 군수는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상황속에서도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 늘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새마을회 회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어려운 이웃들이 풍요롭고 따뜻한 추석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강화군노인복지관, 추석 명절 음식나누기 더 풍성하고 행복한 한가위 보내세요!

강화군노인복지관은 민족 최대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해 무료급식소 어르신 100여 명을 대상으로 ‘추석 명절 음식나누기’를 진행했다.

강화군노인복지관은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무료급식소를 비대면으로 운영해대체식을 전달하고 꾸준하게 어르신들의 신체·건강·심리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이번 추석 명절 음식나누기는 노인복지관 직원들 모두가 어르신들을 위하여 소갈비찜, 모듬전 등을 직접 준비했으며, 더 풍성한 추석 명절을 위한 햅쌀과 햇과일도 함께 전달했다.

노인복지관 관계자는 “추석명절 음식나누기를 통하여 조금이나마 더 풍성하고 행복한 한가위가 되셨으면 하는 마음”이라며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노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추석맞이 사랑 나눔행사

함께 만들어요! 풍요로운 강화!

| 군민우선 **공감행정** | 풍요로운 **주민복지** | 생동하는 **지역경제** |

소외된 분들을 위한 각 단체들의 아낌없는 배려는 올해도 따뜻했습니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주의하세요!

작은소피참진드기 *Haemaphysalis longicornis*



이내고열, 오한, 두통, 구토, 설사, 식욕저하 등의 증상을 보인다.

질병관리청 감염병 포털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전국 환자 수는 105명, 인천은 2명이었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환자 233명 중 40명이 사망해 치명률이 17.2%에 달하는 등 예방에 매우 주의가 필요하다.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 매개체 전파 질환 모니터링을 위해 4월부터 11월까지 월 1회 채집환경(풀밭, 무덤, 산길, 잡목림)에 따라 참진드기를 채집해 진드기 발생 상황과 SFTS 바이러스 감염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올해 8월까지 채집된 2,603 마리의 참진드기에서 SFTS 바이러스는 검출되지 않았으나, 채집환경별로 풀밭 1,542마리(59.2%), 잡목림 444마리(17.1%), 산길 439마리(16.9%), 무덤 178마리(6.8%) 순으로 채집돼, 참진드기 발생이 많은 풀밭 지역에서 활동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질병관리청은 가을철 발열성 감염병 예방을 위해 벌초, 성묘, 등산 등 야외활동 시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진드기에 의해 감염되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은 매년 4월~11월에 발생하며, 주로 7월~10월에 집중된다.

*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SFTS, 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
: SFTS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참진드기에 물려 발생하며 물린 후 1~2주

- 권주형 기자

＋ 예방접종 의탁 의료기관 현황

No	의료기관명	전화번호	코로나19 예방접종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B형주사기	인플루엔자			폐렴구균 (어르신)
			화이자	모더나	노바백스				어린이(13세이하)	어르신	임신부	
1	강화신경외과의원	032-934-2774	✓		✓					✓		✓
2	길상의원	032-937-5105	✓		✓	✓			✓	✓		
3	남궁내과의원	032-934-2142	✓							✓		✓
4	드림 소아청소년과의원	032-934-1175	✓		✓	✓	✓		✓	✓	✓	✓
5	비에스종합병원	032-290-0001	✓	✓	✓	✓	✓	✓	✓	✓	✓	✓
6	수이비인후과의원	032-933-7503								✓		
7	에바다의원	032-933-0059	✓		✓	✓			✓	✓		✓
8	온수의원	032-937-6835	✓		✓					✓		✓
9	유여성의원	032-933-6080	✓							✓		✓
10	강화병원	032-930-8145	✓		✓	✓		✓	✓	✓		✓
11	인성의원	032-932-4455	✓	✓	✓	✓			✓	✓		✓
12	임성식내과의원	032-932-3375	✓		✓					✓		✓
13	정 의원	032-933-8765	✓		✓	✓	✓	✓	✓	✓		✓
14	제일성모의원	032-934-7576	✓		✓	✓			✓	✓		✓
15	중앙의원	032-933-2678	✓		✓					✓		✓
16	참정형외과의원	032-934-8845								✓		
17	큰나무의원	032-233-7588	✓		✓	✓	✓		✓	✓	✓	✓
18	현대내과의원	032-934-4007	✓		✓	✓	✓		✓	✓	✓	✓

강화군, 고인돌 탐방대원으로 선사시대 체험즐거워요!

매주 토·일 운영, 고인돌 선사체험으로 세계문화유산 향유털 트윈 IT기술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강화 고인돌 선사체험'을 오는 17일부터 재개한다.

'강화 고인돌 선사체험'은 문화재청 세계유산 활용 공모사업으로 인류의 자산인 세계유산의 고유한 가치와 역사적 의미를 함께 공유하며 문화유산을 향유하는 프로그램이다.

가족단위로 고인돌 탐방대가 되어, 부근리 고인돌을 탐방하며 사냥체험, 제례의식, 고인돌 축조 등 선사체험을 생생하게 즐길 수 있다. 또한, 토기,

장신구, 모형 움집 만들기, 유물 발굴, 어로, 탁본 체험, 세계유산 사진전 등의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다.

이번 행사는 오는 9월 17일부터 10월 16일까지, 매주 토·일요일 10시부터 16시까지 진행되며, 예약 없이 누구나 현장에서 참여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어린이들이 선선한 가을 날씨에 선사시대를 경험하고, 마음껏 뛰놀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며 "아이들과 함께 더욱 풍성하고 특별한 볼거리를 마련한 강화 고인돌로 나들이 오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고인돌 군락지로 떠나는 고인돌 탐방대



고인돌 탐방대



7톤의 고인돌을 70명이 들끌면 끝릴까 고인돌 단체끌기



선사 사냥터에서 사냥감을 찾고있는 체험객들



사슴을 사냥하여 돌아오는 사냥꾼 체험



선사 사냥체험장에서 호랑이를 사냥한 가족들

기고

烏飛梨落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신 봉 기
강화투데이 발행인

烏飛梨落은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뜻으로, 아무 관계도 없이 한 일이 공교롭게 비슷한 시간대에 같이 발생해 억울한 의심을 받거나 궁지에 몰리게 되는 상황을 나타내는 우리나라 속담입니다.

까마귀는 그냥 날아 올랐는데 그 순간 배가 떨어져 버린다면 아마도 그것을 본 사람들은 까마귀가 배를 떨어 뜨렸다고 생각하겠죠? 이렇게 우연히 동시에 일어난 일로 오해를 받게 되는 경우를 오비 이락이라고 하지요.

하지만, 진실은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진실을 왜곡하는데 이용하려 한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가장 건전하고 중도를 지켜야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매체를 통해서 선동과 조장의 도구로 삼으면서 말이죠.

관광지역으로 유명해진 우리 강화군은 청정지역으로도 손꼽힐 뿐만 아니라, 볼거리와 먹을거리가 많은 곳입니다. 다시말해, 살만한 곳이죠. 원주민들은 각자의 터전속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생활하고 있으며 평온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강화의 변화되는 문화를 긍정적인 마인드로 빠르게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언젠가부터 이름모를 어여쁜 꽃과 풀이 거리에 한들거리기 시작하면서 강화는 예술가들도 많이 모여 사는 더더욱 감성 넘치고 정서 넘치는 정겨운 강화군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시인처럼 가슴 저며오는 글이 쓰여지는 강화, 때로는 화가처럼 멋진 풍경이 그려지는 강화". 살다보면 서로 나누는 대화도 글이 되고 그림이 되는 그런 강화를 꿈꿔 보면 더욱 아름다워질 우리 사는 곳의 모습에 행복하기까지 합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말합니다. 대체 비싼 밥먹고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도대체 알 수 없다고 말입니다. 물론, 사람들의 마음이 다 똑같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아닌거는 아니라고 말을 해줄 수 있는 용기있는 사람들이 있기에 저런 이야기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만 그 속내에는 과연 순수한 마음에서만 우려난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들게도 만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나, 누군가를 모함하고 깎아 내리려는 행동에는 순수함만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힘들겠지요. 마음의 칼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본인만이 알고 있는 것이기에 더욱 무섭습니다. 용기있는 행동이 누군가를 향해 있는 것이라면 그 행위를 단순히 순수하게 보기만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야 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특별한 일! 특종! 이런 기사를 써서 Hot News가 되면 주목도 받고 좋겠지만, 지금 이곳에는 서로를 헐뜯고 잘한 일은 도외시하여 편향되고 치우치게 강화의 순수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가스라이팅 하는데 혈안이 된 사람들이 꽤 보입니다. 메이저가 아니어도 언론이라면 중도를 지키고 양쪽의 말에 귀 기울여, 있는 사실만 전달하는 것이 언론의 책무이거늘 오로지 자극적인 이야기와 누군가를 해하기 위해 혈안이 된 자신의 모습을 치졸함으로 장식하고 있는지 모르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이 마치 인기인 양 제대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잡초가 무성한 풀숲을 연상케하는 상상력으로 타인의 맘을 유인하는 기사를 실어 마치 동네에 이런이런 소문이 있더라는 찌라시를 뿌려 연명하는 모습은 정말 철없는 아이들이 패싸움하는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비싼 밥을 먹고 쓴 말을 뱉는 입에서 나오는 것을 순수하고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말하기는 힘듭니다. 그 입에는 무언가 좋지않은 향이 풍깁니다. 강화의 변화를 위해 진취적인 행동을 한다고 포장하기 힘듭니다.

말그대로 강화의 원주민들이 각자의 터전속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생활하고 있으며, 평온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강화의 변화되는 문화를 긍정적인 마인드로 받아들이고 있는 이 곳! 강화에서 만큼은 이런 모습이 수용되어서는 안됩니다. 편협하고 자극적인 가십에 흔들려서도 안될 것입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아도 강화는 이제 조금씩 기지개를 펴고 살기 좋은 고장으로 변모하고 있는 이때에 누군가를 선동하고 누군가를 모략하고 누군가의 정서를 갈취하려는 행동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하필이면 배가 떨어질 무렵, 그냥 날아오른 까마귀에게 너때문이야라는 오명을 씌우는 것은 불합리 합니다.

성토할 수 있습니다. 토로할 수 있습니다.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누군가를 향해 또 다른 마음의 칼로 해할수 있는 당위성은 없는 겁니다.

사람!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그곳에는 같은 마음을 향한 노력이 전제되어야 함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스스로의 의지로 선함이 연결되어 더이상 까마귀가 날지 않는 세상! 예술가의 상상에서 나오는 작품처럼 아름다운 풍광이 만들어지고 있는 지금 이 강화에, 선한 강화인들이 백로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 이 강화에 더 이상 까마귀가 노니지 않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



용정공인중개사

KAR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화군지회 여성위원장 **공인중개사 손옥득**

부동산학과 수석졸업 만학도가
노하우를 알려드립니다!

 **YouTube** **강화용정부동산** 

032.933.3359 / 010.3333.6018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216번길 12

**전원주택·빌라·아파트·토지
농지·농막·전/월세**

 **강화투데이**

www.ghtoday.co.kr

등록번호 인천, 다06132(일반주간 / 구독료 무료) 등록일 2021년 8월 17일 발행인 강화투데이(주) 신봉기 편집인 최벽하 인쇄인 서석준
발행소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송악길 4 T. 032)933-1080 F. 933-1082 E. today1080@naver.com

강화투데이 취재·광고 후원 ☎ 032.933.1080 농협 351-9933-1080-53

▶ 민의(民意)의 마음으로 오늘을 열어나가는 강화투데이(일반주간)는 구독료 무료로 애독자분들께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미디어입니다! ◀
강화군 신문발전지원조례에 따라 강화군 지방보조금으로 지원 제작되었습니다